

[보도자료]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2026 경기e스포츠 페스티벌' 전 종목 우승

2026. 5. 26.



FC 온라인 지적발달 부문 우승자 정영우 선수(왼쪽)가 시상자로 나선 탁용석 경기도콘텐츠진흥원장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김규민·문준석·정영우·박주현 등 결승 진출 선수 전원 승리하며 쾌거 달성
- 전면 재택근무 환경 및 전직 프로게이머 1대1 코칭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 결실
- 전담 조직 '포용경영팀' 통한 맞춤형 직무 개발 성과 입증

2026. 05. 26. 서울 - 쿠팡은 자사 장애인 e스포츠팀 선수들이 지난 21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2026 경기e스포츠 페스티벌' 결승전에 출전해 모든 종목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수도권 대표 게임 축제인 '2026 플레이엑스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열린 장애인 부문 온라인 예선전에는 쿠팡 선수들을 포함한 장애인 e스포츠 선수 71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예선을 거쳐 선발된 선수들이 21일 최종 오프라인 결승전에서 맞붙었다.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은 결승전 2개 종목의 총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승 타이틀을 획득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서는 지적·발달 부문의 문준석 선수와 지체·청각 부문의 김규민 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FC 온라인 종목에서도 지적·발달 부문의 정영우 선수와 지체·청각 부문의 박주현 선수가 분전 끝에 승리했다. 박민성 선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지체·청각 부문, 오경환 선수는 FC 온라인 지적·발달 부문에서 각각 준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2월부터 쿠팡 e스포츠팀에 합류해 활동 중인 정영우 선수는 "경기 초반에는 긴장했으나 잘 극복하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어 기쁘다"며 "재택근무가 가능해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유명 전직 프로게이머들의 코칭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팀에 합류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회에서 수상한 쿠팡 장애인e스포츠팀 선수들이 우승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e스포츠는 신체적 제약의 영향이 적고 높은 몰입도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 장소의 제약도 적다는 점에서 최근 장애인 인재들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쿠팡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해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직무 개발부터 채용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왔다.

쿠팡은 장애인 직원을 지원하는 사내 전담 조직인 '포용경영팀'을 통해 선수들이 신체적 제약 없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재택근무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e스포츠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1대1 코칭, 전술 분석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적극 돕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2024년 10명이던 e스포츠팀 규모는 현재 8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쿠팡 관계자는 “선수들이 꾸준한 노력으로 기량을 닦아 거둔 이번 우승 성과가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근로자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